

# '싸움'을 통해 본 중국의 현대사

## 조나단 스펜스의 「현대중국을 찾아서」



중국현대사를 이끌어온 인물들. 왼쪽부터 1925년의 장개석, 1935년의 모택동, 1987년의 덩소평.

세계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또한 그 오랜 역사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 과거 역사 속의 독재자들의 망령과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해 천안문 광장의 시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89년과 그 이전 민주화 운동의 힘겨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국의 현 상황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녀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나단 D. 스펜스(Jonathan D. Spence)의 「현대중국을 찾아서」(*The Search for Modern China, New York: W.W. Norton & Company*)는 중국의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 방면에 대한 기존의 책들이 대부분 왕조시대로부터 공산화되기까지의 중국의 정치,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 17세기 明代로부터 89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4세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풍부한 자료와 예증설명을 바탕으로 현대세계에 있어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를 찾으려는 중국의 힘겨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표지에 그려진 드라마틱하고 격동적인 중국의 표의문자는 바로 스펜스가 의도하고 있는 주제

를 암시하고 있다.

'爭'이라는 문자는 '충돌'과 '싸움'을 의미한다. 즉 왕조제국으로부터 단일민족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긴 역정 속에 담겨있는 쓰러린 투쟁을 보여준다. 또한 개혁세력과 혁명세력간의 투쟁, 농경국가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산업화된 중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의 은유로서, 우리에게 중국인들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대 중국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스펜스의 가장 큰 업적은 왕과 관료, 지식인과 농민, 남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망라하는 대립과 충돌을 그려냄과 동시에 그들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 작업에 있어 그는 이전의 저서들보다 훨씬 더 오랜 자료수집 기간을 투자하여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각각 분리된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포괄, 자신의 시각으로 역사적 갭을 초월하는 대가다운 구성력을 보여주는 그는 특히 역사적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고찰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무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섬세한 묘사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 책의 장점은 우선

그 내용의 풍부함이다. 최근까지 입수할 수 없었거나 소개되지 않았던 많은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책은 현대중국을 이해하는 서구적 시각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유럽과 소련에 있어서의 최근의 변화를 반영, 이와 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문제 對 경제적 재건으로 고민하는 개량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덩소평을 평가, 분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천안문 시위에 대한 덩소평의 폭력적 대응은, 서구기술문명에 대한 '제한적' 수용과 개방에 의해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19세기 유교적 정치가들에 대한 그의 부채의식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다. 이들은 '의견차이'는 곧 '배신'과 동의어라는 관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덩소평의 예에서처럼 정치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를 나타낸다.

현재의 독재정체에 저항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지적 요람인 베이징대학은 학문과 민주화운동의 핵심지-1919년 이래 계속되어온-이다. 그 학구적이고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은 천안문 시위 이후 반대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휴머니즘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중국의 지식인들은 말없는 다수의 고통을 대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유교적 지식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의 방청객"일 수 없으며 중국사를 연구하는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역사적 판단의 문제는 우리자신의 당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펜스는 이러한 역사적 판단의 문제로부터 회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 중국의 마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는 공정한 비판적 시각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의 관점을 탐색한다. 펄벅의 부모와 같은 선교사, 미하일 보로딘 같은 볼셰비키 혁명가, 버틀랜드 러셀이나 존 듀이 같은 비종교적 철학자들은 모두 이 고대문화(중국)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서구적 이미지로 묘사한다. 그러나 서구적 가치판단으로, 그들에게 유용한 '거울'로서 중국을 이용하려는 경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은 심지어 중국땅을 한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상가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가장 폐쇄적이었던-그들의 전통과 외부세계 모두에 대해서-문화혁명(1966~69) 당시에도, 거대한 중국의 목소리는 모택동이 쌓아놓은 철통같은 장벽 너머에까지 들려왔다. 스펜스의 예리한 통찰력은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은 서구 독자들에게 중국인들의 생존과 현대화를 위한 계속적 투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투쟁의 중요성은 중국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서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에 오래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장벽보다 더 완고한 마음의 벽을 만들고 있으며, 민주화에 대한 위협적인 장애물과 일당독재보다 더 질서정연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잊으려 하건 무시하려 하건, 과거는 현재에 드리운 그림자가 되며 확실하고 공정하게 평가되는 '역사'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최선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 남아공에서의 백인 자유주의자의 고민과 역할

앨리스터 스파크(*Allister Sparks*)의 「남아프리카의 정신」(*The Mind of South Africa, New York: Alfred A. Knopf*)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 백인(영어권)의 손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문제를 다루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내국인(insider)은 자신이 속해있는 나라에 관한 저술작업에 있어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서 서 있다. 특히 남아공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직관적인' 내부인의 시각이 필요하다. 가끔 외국인에 의해 씌어진 신문기사나 리포트들을 보면, 국내상황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한 사태를 바라보는 직관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아공의 뛰어난 저널리스트인 스파크의 이번 저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17세부터 '랜드 데일리 메일'(*The Rand Daily Mail*)의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후에 편집장으로 발탁되는 한편, 프레토리아(남아공의 수도) 정부를 반대하는 자유진영의 대표자로서 81년까지 계속 이 그룹을 이끌었다. 그 이래로 스파크는 '워싱턴 포스트'와 '런던 업저버', 그밖의 많은 신문사에서 일하며 기사를 썼다. 그는 60년대 초반을 하버드에서 보냈고, 듀크대학에서 자신의 수상저작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스파크가 이번 저서를 통해 보여준 것은, 한 나라의 '정신'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말했듯이, 스파크는 영어권의 백인, 소수의 백인에 속하기 때문에 흑인뿐 아니라 반세기 동안 남아공을 지배해온 보이인(네덜란드계 남아프리카 이주자)을 이해하려 한다. 남아공에 사는 백인이자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종족인 이들 보이인들에게서 스파크는 바로 아파르트헤이트의 近因을 찾으려 한다.

그에 의하면 아파르트헤이트는 보이인들의 경제력에 의한 '민족적 생존계획'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 역사적 정당화를 가미하면서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방법으로 행해진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었음을 그는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스파크가 지난 30년동안 꾸준히 아파르트헤이트의 몰락을 예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백인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빈정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스파크 한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즉 이 말은 "편견없는 백인 자유주의자들은 남아공에서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남아공에 융화되지 못하고 선불리 보이인의 민족주의나 아프리카 흑인들의 민족주의를 가치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파크는 "아프리카인은 완전히 정신적인 사람들"이라거나 그들의 공동체 의식속에서 아프리카인들은 "서구의 물질문명에 훨씬 앞서 인간의 가치와 진가를

존중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파크의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는, 만약 공동체주의 개념의 역사적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하기 전에 잠비아나 탄자니아 사회주의자들을 만나보았다면 극복되었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결국 스파크의 「남아프리카의 정신」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아공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다수민족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자로 이루어진 '희망'이 아니라 나딘 고디머의 소설 중에 인용된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처럼 "구체제의 몰락과 새로운 체제의 탄생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적 징후"를 감지함과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려는 남아공 국민모두-흑인, 보이인, 또한 소수 백인 자유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자신과 동행한 뒤라스의 산문적 여행기

프랑스인들은 까다로운 문화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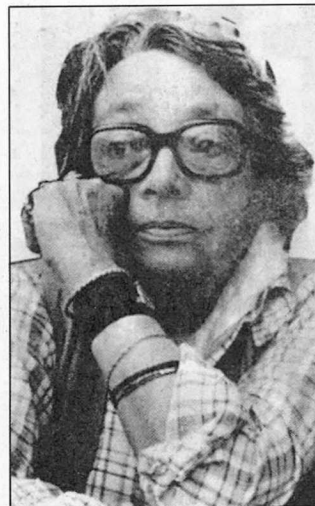
자들로 유명하지만, 아무도 마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를 '여류작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몇년전 우리나라의 한 불문학 교수가 말했다 듯이 "뒤라스는 이미 군림하는 하나의 세계"이며 "뒤라스는 이미 뒤라스"로서 존재하고 있다.

1943년 데뷔작 「파렴치한」 이래 「지브랄탈의 水夫」 「부영사」 등 수많은 걸작을 발표하는가 하면, 58년 알렌 레스네의 「히로시마 나의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60년대 영화계에 충격을 주었던 영화감독으로도 유명한 뒤라스는, 특히 84년 콩쿠르상 수상작인 「연인」(The Lovers) 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졌다.

‘누보로망’의 기수답게 뒤라스의 작품들은 독자에게 부담스러운 만큼 난해하다. 최근에 출간된 「실제적인 것들」(Practicalities : Marguerite Duras Speaks to Jérôme Beaujour, Grove Weidenfeld)이라는 작품도 그녀 특유의 해체적이고 생략이 심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친구인 제롬 보주르와의 대화로 구성된 이 작품에는 간결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48편의 단편들이 자유로운 대화방식속에 담겨있다. 그녀는 이 작품을 “당신과 나, 나 자신과 나 자신 사이의 여행으로의

돌아옴”이라 부른다.

두사람은 절제되고 거의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들의 심각한 고통과 자기고백을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프랑스의 여류작가 마그리트 뒤라스.

있다. 폭넓은 대화에 일관되는 중심 소재는 자전적인 것들이고, “당신은 당신의 생애, 당신의 전생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뒤라스의 신념에 따르고 있다.

1914년 인도차이나의 글라딘에서 태어나 지금은 백발에 굵은 데의 검은 안경을 낀 고집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가 소녀시절에 있었던 열차에서의 육체적 만남, 알콜중독, 35세 연하의 남자와의 사랑, “검은 가디건, 줄무늬 스커트, 폴로네크

스웨터, 겨울의 짧은 부츠”라는 그녀의 변치않는 유니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 ‘실제적인 것들’에 관한 이러한 기록들은 종종 을씨년스러운 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녀는 또한 다른 작가들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를 해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싸르트르는 “굴락(Gulag : 소련의 강제 수용소)없는 나라의 술제니친”으로 묘사된다.

그녀가 심사숙고하여 우리앞에 내놓는 작품들은 죽음·광기·추억·性を 중심 소재로 하고 있으며, 뒤라스의 최고의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절박함’은 이 모든 요소들을 신비롭고 강력하게 작품 속에서 융해, 결합시켜버리면서 뒤라스다운 목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 책에서도 뒤라스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충만한 작가의 식탁에서는 디저트를 하면서 잊혀진 半生을 이야기한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 목록 1990년 5월 20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STAND 스테판 킹(더블데이) 미국에 붙어 달린 공포의 최후심판일; 78년 초판된 어느 소설의 끝이 지 않는 이야기.	MEN AT WORK 조지 F. 윌(맥밀런) 정치학자와 야구광이 게임의 기술에 관해 묘사한다.	THE SERVANTS OF TWILIGHT 던 R. 쿤츠(버클리) 광신도들에게 반그리스도자로 낙인찍힌 아들을 둔 어느 여인의 모진 시련.	LOVE AND MARRIAGE 빌 코스비(벤티) 사랑의 완성과 실패의 여러 유형에 대한 고찰.
2	SEPTEMBER 로자문드 피셔(던/스. 마틴)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겪는다.	MEGATRENS 2000 존 네스빗 & 페트리셔 에버딘(머로우) 향후 10년에 대한 예측서.	RED PHOENIX 레리 본드(워너) 제2차 한국 전쟁에서 활약하는 세명의 군인.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럼(아이비) 영감이 가득찬 에세이집.
3	OH, THE PLACES YOU'LL GO! Dr. 소이스(랜덤하우스) 시와 산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한다.	BARBARIANS AT THE GATE 브라이언 버로우 & 존 헬리어(하퍼 & 로우) RJR 나비스코의 통치기간 중 일어났던 1988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	A PRAYER FOR OWEN MEANY 존 어빙(발렌틴) 한 소년이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가 담긴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	"DOC" 잭 울슨(델) 한 소년의 신뢰받던 의사의 정체가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된다.
4	DRAGON 클립 커슬러(사이몬 & 셔스터) 1993년 더크 피트가 일본 과학자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 활약한다.	IN THE ARENA 리처드 닉슨(사이몬 & 셔스터) 미국 37대 대통령이 자신의 공적 경력과 사생활을 회고한다.	GUARDIAN ANGEL 줄리 갈츠(포킷) 조지언 잉글랜드에서의 해적행위와 배신, 복수, 그리고 사랑.	"FUNNY, YOU DON'T LOOK LIKE A GRANDMOTHER" 루이스 와이즈(아이비) 유명해지려 애쓰던 한 여인이 할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반성한다.
5	THE BOURNE ULTIMATUM 로버트 리들럼(랜덤하우스) 제이슨 본이 무자비한 메두사 브리지에 비행기로 침투한다.	HEAD FIRST 노만 커즌(듀던) 어떻게 뇌가 신체의 내분비선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RAINBOW IN THE MIST 필리스 A. 휘트니(포셋) 자신의 영적 힘으로 야기된 일들에서 도망치려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	FROM CRADLE TO GRAVE 조이스 에긴턴(조우브) 14년전 9명의 자녀가 모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
6	SKINNY LEGS AND ALL 톰 로빈슨(벤티) 유니티드 내이션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다가오는 계시록의 공포와 유모어.	MEANS OF ASCENT 로버트 A. 캐로(코노프) 1948년 87표 득표로 승리한 린든 존슨의 상원의석에 대한 7년간의 집념.	THE TEMPLE OF MY FAMILIAR 앨리스 워커(포킷) 지난 50만년에 걸친 중, 류, 그리고 성의 관계.	THE LIVES AND LOVES OF NEW KIDS ON THE BLOCK 질 매튜(포킷) 젊은 인기 그룹 사운드스의 이야기.
7	THE EVENING NEWS 아더 헤일리(더블데이) 경쟁적인 두 TV 통신원의 생활상.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로버트 풀럼(빌라드) 영감적 에세이들이 담긴 신작 모음.	THE HUNT FOR RED OCTOBER 톰 랜시(버클리) 한 잠수함 기장이 소련의 핵기밀을 미국으로 가져온다.	NEW KIDS ON THE BLOCK SCRAPBOOK 그레이스 카탈라노(시그넷/NAL) 어느 그룹사운드스의 화보와 그들의 일상사.
8	AN INCONVENIENT WOMAN 도미니크 던(크라운) 로스앤젤레스 상류사회의 생활방식과 도덕관, 그리고 살인.	LIAR'S POKER 마이클 루이스(노턴) 한 젊은 증권매매업자가 체험한 윌스트리트의 격동의 80년대.	THE NEGOTIATOR 프레드릭 포사이드(벤티) 어느 미국 국외추방자가 테러리스트들의 음모를 밝혀내려 애쓴다.	SUMMER OF '49 데이빗 헬버스탑(아이비) 레드 삭스팀과 뉴욕 양키스팀이 격돌했던 그해의 마지막 게임.
9	FAMILY PICTURES 수 밀러(하퍼 & 로우) 시카고 어느 대가계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40년.	FLASHBACKS 몰리 셰퍼(랜덤하우스) 25년이 지난 베트남을 다시 찾은 한 저널리스트의 방문기.	THE SHELL SEEKERS 로자문드 피셔(델) 어느 여인과 한 그림작품이 영국인 가족 3대와 연관된다.	THE ROAD LESS TRAVELED M. 스크랙(터워스톤) 한 정신과의사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영감.
10	MASQUERADE 잭넷 데일리(리틀, 브라운) 뉴올리언즈의 어느 여성숙인이 니스 카니발에서 가면 쓴 한 남자와 마주친다.	A BRIEF HISTORY OF TIME 스테판 W. 호킹(벤티) 우주에 대한 통일된 이론 제시를 시도한 과학리뷰.	GULLIVER'S FUGITIVES 케이드 세리(포킷) '스타트랙'계획으로 인류의 잊혀졌던 이주지가 우연히 발견된다.	NEW KIDS ON THE BLOCK 그레이스 카탈라노(벤티) 5인조 그룹사운드스에 관한 이야기.